

1 개요

신천본향 선씨일월 본풀이는 성산읍 신천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현씨일월은 양반집 딸로 태어나 무병을 앓았으나 오라비들이 적극적으로 무업을 할 수 있게 도우려 하다가 파선하여 죽으니 현씨일월도 따라 죽고 말았다.

2 내용

옛날 신하천리 현씨는 양반집이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 딸인 현씨일월은 세 살에 병이 들어 다 죽어가다가 일곱 살에 살아나고, 열다섯에 병이 들어 죽어가다가 열여덟, 열아홉에 살아났다. 오라비 형제는 무엇을 하든 살아나라고 하고, 심방이 된다고 하면 육지를 가서라도 무복을 사다줄 테니 살아나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라비 둘은 육지로 가서 옷감을 사서 신천리에 도착할 즈음 갑작스러운 바람에 파선을 당하여 죽고 말았다. 현씨일월은 낙담하여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

사람들이 물 길러 갔다가 현씨일월이 죽은 것을 보고 마을에 알렸다. 마을에서는 시신을 건져다가 신남밭에 묘를 마련해주었다. 이 마을에서 굿을 할 때는 현씨일월 뒹으로 공깃상을 따로 차리고, 한편으로는 일월로 놀리고 한편으로는 심방으로 놀렸다.

3 특징

조천읍 신촌리에서 거주하던 정두삼의 전승자료이다. 현씨일월은 무병을 앓는 누이를 오라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병을 낫게 하려고 한 점, 오라비들이 누이의 무복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파선하여 죽은 점, 누이가 오라비들을 따라 스스로 죽음을 택한 점 등 전체적으로 보아 <예촌 양씨아미본풀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곧 현씨일월이 조상신의 면모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당신으로 모시게 된 내력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4 핵심어

신하천리, 현씨일월, 심방, 무복, 신천리, 파선, 신남밭, 공깃상, 오누이, 당신

5 원전 서지사항

신천본향 선씨일월(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